

5.18,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유럽한인의 대응양상*

김면

본 논문은 신군부의 등장이후 헌정질서의 위기상황에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펼친 교민들의 민주화운동과 단체의 활동상을 고찰하였다. 유럽지역 교민들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작은 규모이지만 민주화운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였고 그 영향력을 크게 미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 민중항쟁의 좌절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로 인하여 일반교민들은 사회의식에 눈을 떴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당시 교민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어떠한 활동방식을 전개했는지,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내의 억압된 정책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어진 장에서 교민단체가 국제사회에서 현지정당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여론형성을 현지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끝으로 오늘날 교민사회운동이 약화된 상황에서 구심력의 역할을 맡아온 오월민중제의 의미성을 살피고자 했다.

주제어: 5.18 민중항쟁, 민주주의 위기, 유럽한인운동

1. 서론

본 연구는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촉발된 유럽지역 교민들의 민주화운동 및 그 성과를 살피고자 한다. 유럽지역의 교민사회는 중국, 미국, 일본 등 타 지역의 교민사회와 비교해 볼 때 그 인구규모가 크진 않다. 유럽은 독일로 한인 간호사와 광부들이 이주한 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교민사회가 형성되었고, 1980년 이후에는 이민유입이 사실상 힘들어져서 여타 지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민 수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소수 유학생들만이 국내의 정치문제를 국제여론에 알리는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럽지역은 5.18 민중항쟁의 좌절과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조국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된다. 특히 유럽지역가운데 독일지역연대가 가장 활성화되어 교민운동을 전개하였고 시민단체 간 교류가 집중되어 있었다. 프랑스, 영국 등 교민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했으며 독일단체들이 유럽한인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에, 본고는 독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5·18기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제목: 5.18과 유럽민주화운동사).

재유럽교민들은 민주주의 위기상황에서 국내민주화를 위해 유럽 현지의 정당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시켰다. 그리고 교민들은 억압된 정치상황하에서 국내 시민들이 억눌려 언급조차 힘들었던 민주주의 문제를 과감하게 국제사회에 드러내어 변화를 유도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였다. 교민들은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었고 민주화운동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민주화운동이 새로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진행된 5월 행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며(정호기, 2004: 205) 재외교민운동사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민주화과정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고 객관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면서 과거민주주의 위기와 이에 대한 사회운동에 대한 규명연구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5.18 민중항쟁이 기폭제가 되어 진행되었던 유럽의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현장에 직접 참여했었던 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외한인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역할과 대응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II. 5.18, 한국민주주의 위기와 교민대응

1. 5.18 민중항쟁보도와 교민운동의 대중화

독일 언론은 1980년 5월 18일 민중항쟁과 관련한 소식을 19일부터 보도하였다. 각종언론매체들은 사건의 발발에서 진행과정을 상세히 분석전달하게 되었다. 주요 언론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남독신문(Süddeutsche Zeitung),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 벨트(Die Welt)와 슈피겔(Der Spiegel)을 포함한 독일의 신문과 잡지는 언론사의 입장과 편집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두었지만 5.18 민중항쟁의 발발, 경과, 결과, 주변 국가들의 반응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김성재, 2004: 174). 보도 출처는 국내기사의 번역,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기자의 직접적인 기록, 일본 동경발 외신 및 중국 인민일보 그리고 북한 통신사 KCNA를 인용한 소식 등이었고 서로 다른 시각의 보도 내용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공영방송인 ZDF와 ARD가 취재했던 녹화비디오와 ‘찢어진 깃폭’ 등 각종관련 자료들이 방송을 통해 생생히 전달되었다(어수갑, 2004: 258). 독일의 신문, 잡지와 TV방송은 계엄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국내언론매체와 비교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유럽사회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영상으로 널리 보도하였다. Peter Crome는 5월27일 “혁명 정신이 우리를 엄습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슈트트가르트차이팅지에 실었고(김용출, 2006: 236) 힌츠페터는 동료 헤닝과 함께 5월20일 화요일 오전 택시 운전사 김사복의 도움으로 광주에 잠입취재하기도 하였다(김용출, 2006: 234). 많은 교민들은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국내소식과 참혹했던 현장사진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 군사정권의 탄압에 항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977년 9월 탄광근로자로 독일로 입국했던 이준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80년 5월 광주가 터집니다. 그 터진 속에서 독일의 제이방송인가? 거기에서 광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제가 기억은 없는데, 한국 특파원으로 가있던 기자가 그걸 찍어서 전 세계에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보내게 되죠. 사실 그 살벌한 상황,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내서 밝혀지는데, 그걸 보는 저희 입장으로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이 독일의 광산 근로자들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소위 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세상에 제 나라 민족을 제 나라 군인이 그렇게 짐승처럼 죽이는 그런 광경들을 생생하게 목격했을 때는 정말 치솟는 분노, 민족적인 모멸감, 수치감 이런 것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조국이 뭔가.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내 나라고, 내 조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이준식 구술).”

5.18 민중항쟁에 관한 외신들의 보도는 유럽 내 교민운동이 대중화하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TV와 신문 및 잡지를 통해 보도된 광주의 참상과 그 이후 벌어진 국내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은 한인 동포들이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1974년부터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가 결성되어 국내유신체제에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주로 소수의 유학생이 중심이 되었고 교민사회의 저변에 뿌리를 두지 못하였다. 독일로 파견된 광산근로자와 간호사들은 노동체류와 근로조건의 문제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운동에 주로 몰두해 있었다. 특히 교민사회는 냉전시대에 받았던 반공교육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을 조국에 반하는 좌익행동으로 보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시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아예 관여하지 않았었다. 위기상황의 평가에 있어서 공중의 감정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지만(조승호 외, 2011: 20), 국내 언론이 통제되는 상황 하에서 독일의 주요 방송은 교민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독일방송에서 방영된 소식은 국내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던 다수의 교민들도 조국의 위기의식에 눈뜨게 하여 민주화와 인권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민건회 및 다른 단체에 가입해 있던 개인들과의 연대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다(조현옥, 2005: 88).

김아일은 당시 독일 튀센이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5.18 민중항쟁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의식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운동 데모 하나 만큼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를 했죠. 운동단체가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거든요. 기껏 해 봤자 소수인데, [...] 주요 시간에 확정뉴스로 광주를 먼저 보여주고 뉴스를 시작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운동권이다 뭐다 이런 거를 떠나서 당연히 어떤 감정이 불타오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죠. 80년대 기점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5.18을 계기로

해서 많이 의식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5.18 일어나고 얼마 안돼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운동단체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던 일반교민들끼리 또 독일인까지 다 참가한 약 500명 정도해서 푸담 여기 가장 변화가에서부터 저기 뉘텐베르크라는 거리까지 이제 데모를 했어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데모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광범위하게 순교민 운동단체는 물론 그리고 독일인까지 해서 중심가에서 데모를 했다는 것이 유럽운동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거죠(김아일 구술).”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군사행동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일반교민들은 심한 분노감을 갖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대중적 정치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은 군사정부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서 유인물을 자발적으로 배포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들의 활동은 국내의 긴급한 위기사정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계기로 교민 운동은 소수 운동가들만의 단절된 조직 활동이 아니라 많은 교민들이 민주적 사회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대중적인 운동의 모습을 보인다.

교민들과 함께 일반유학생들도 민중항쟁의 실상을 알리고자 시위에 참여하였고 폭넓은 홍보활동을 하였다. 튀빙겐, 괴팅겐, 마부르크, 베를린, 보쿰과 쾰른 등지에서 이들은 광주에서 자행된 군사행동에 항거하는 성명서를 함께 내었고, 독일 내 정당과 인권단체 및 저널리스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관련 자료집을 독일어로 발간하기도 하였다(어수갑, 2005: 115-116). 또한 한인교회소속 목회자들 약 30명은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의 시내중심에 있는 교회를 빌려 단식투쟁을 사흘 동안 하기도 했다(이영빈, 2005: 324). 교민들은 유럽사회 내 일반시민에게 한국의 상황 및 군사권력의 부당성을 호소함으로써 해외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이들은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들 모두가 투철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광범위한 시민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앞서 활동하고 있던 ‘민주사회건설협의회(민건회)’, ‘재독 한인노동자연맹(노연)’ 및 ‘재독한국여성모임(여성회)’에 가입해 있던 인사들도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을 함께 펼쳐나갔다.

5.18 민중항쟁이후 파급된 조국민주화의 열망은 유럽 교민들이 능동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Geißel &Thillman는 붕괴, 혁명 및 비제도적 사회운동의 파생을 사회체제의 위기와 연계시켰다. 이러한 저항은 시민이 민주주의에서 소외(Entfremdung)의식을 느끼고 사회적 모순(Widersprüchen)과 긴장(Spannungen)이 자아낸 통치불능(Unregierbarkeitskrisen)과 법적정통성위기(Legitimitätskrisen)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정리하였다(B.Geißel und K.Thillman, 2006: 173).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 스스로가 본래 정치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들은 70년대 조국의 상황에 방관하며 ‘관객’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나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이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민주적 가치를 바르게 자각하고 정치의식을 고양하여 능동적으로 정치활동에 참가하였다. 교민들은 신문, 잡지, 서적, 전단지 등을 통한 선전, 좌담회, 시위운동 및 방송을 통해 진정한 민의(民意)를 해외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소수 군사수뇌부가 자기의 지배권력을 유지하고자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위기상황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참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교민의 마음속에 깊이 인식시키며 데모크로시의 지표를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김대중 구명운동과 국제사회에 대한 연대활동

당시 군사법정은 김대중을 5.18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내란음모죄로 구속시킨 이후 사형선고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 상황이 억압적인 분위기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교민들은 현지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연방정부와 정당 그리고 영향력 있는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김대중의 석방을 호소했다. 윤이상, 정규명 등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와 ‘국제사면위원회’에 5.18 민중항쟁의 진실과 김대중 구명을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교민들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일 구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간호사로 파견을 왔던 김정숙은 독일사회에 호소문과 서명을 통한 구명활동을 펼쳤다.

“그 방법들 중에 데모, 나라 수상들에게 호소문 보내는 거, 진실을 알리는 거,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화 활동을 이 기회에 함께 하면서 우리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들끼리 한독친선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독친선회에 가입 되어 있던 분들이 독일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됐죠. [...] 서명운동을 해서 여기서는 서명운동을 해서 10만인가 만 이상이 되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숫자 이상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때 외무부장관으로 있던 겐서씨가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가서 전두환한테 이제는 김대중씨, 그때 투옥되어있을 때였어요. 그분이 출옥하게끔, 그때 사형선고 받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김정숙 구술).”

김대중 석방운동은 한인민주화운동이 국제사회와 연대를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연대위원회(Korea Komitee)’가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연대위원회는 윤이상과 귄터 프로이텐베르크(Günter Freudenberg)교수에 의해 1977년 2월 세워졌고 이후 동백림사건과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교민운동을 지원해왔다(Roland Wein, 2007: 212-213). 이 단체는 5.18 민중항쟁과 김대중의 사형선고를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성을 띠고 국제적인 연대를 조성하여 한국의 민주화활동을 헌신적으로 돕게 되었다. 프로이텐베르크는 조남호와 함께 사회민주당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당수에 공개 항의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한국의 상황과 정치범의 석방에 대해 언급하고 김대중 구명을 요구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답장에서 투옥된 정치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힘을 쓸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연대위원회는 1979년부터 발간하던 한국소식지(Korea Korrespondenz)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정

부를 규탄했다. 1980년 8월호 3/4호에는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실었다.

“김대중을 살려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명을 모아주십시오! 지역언론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계시는 정치가, 교회관계자, 학자들, 예술가들에게 김대중을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알려 주시고, 공개적인 저항을 요구해 주십시오! 저항이 멈춰서는 안됩니다! 김대중이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Roland Wein, 2007: 212).”

교민들은 강력한 연대감과 희생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의 민주주의 위기상황을 국제사회의 정치적 쟁점으로 이슈화하여 군사정부의 물리적 폭력에 대항하고자 했다. 1980년 11월 1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50여명의 독일인과 한국인이 모여 김대중 사형선고를 취소하라는 시위를 했다. 국제적인 지지모음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일본의 경우 5월부터 6월에 걸쳐, 6월 15일의 도쿄집회 7천명, 28일 한일 연대데모 1,200명 등 천 명을 넘는 규모의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1981년 5월에는 뒤셀도르프, 뮌헨, 뮌헨글라트바하, 괴팅겐에서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윤이상은 “광주여 영원하라(Exemplum: In Memoriam Kwangju)”라는 교향곡을 만들었고 같은 해 5월8일 쾰른에서 서독일 방송국(WDR)의 교향악단이 이를 연주하였다(Roland Wein, 2007: 216).

1981년 9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가 서울을 올림픽개최지로 결정하자 독일 내 한국연대그룹들은 일 년 전에 군대를 동원해 민주봉기를 진압한 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일 내 한국연대그룹들은 올림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활용하여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Roland Wein, 2007: 218-219). 군사정부가 올림픽을 집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장으로 전락시키고 국제외교무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들은 밝히고자 하였다. 코레아협의회 사무장을 맡았던 최현덕 박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술하였다.

“전두환 정권이 5.18을 통해서 집권한 정권인데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일종의 정통성을 만들려는 노력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놔둘 수 있는가라는 토론이 있었어요.[...] 독재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사람 내지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꾸준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자. 그러니까 한국의 두 얼굴을 같이 알려주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일종의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코리아 올림픽아 캠페인’,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1986년부터 1988년 정도, 올림픽 끝날 때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문도 내고, Korea Forum’이라고 해서 A4 용지로 4장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쁜 저널리스트들이 다 보고, 그런 것도 내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그 연합체를 구성할 때 한국연대위원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이 독일 내에 얼마 안 되는 좀 진보적인 지한파들을 거의 다 결집시키는 그런 연합체였어요 (최현덕 구술).”

1986년 3월 한국올림픽 캠페인모임이 결성되어 국내의 인권위기, 민주적 운동의 억압, 노동자와 농민의 상황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Roland Wein, 2007: 219). 이때 활동인사들은 한국연대사업관련 단체 소속뿐만이 아니라, 독일교회 내 선교단체와 한국선교관계자도 많이 참여했고, 그 외 저널리스트, 재단,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학분야 학자와 진보인사 등 독일 내의 지한파들도 함께 뜻을 같이했다(최현덕 구술). 한국연대위원회의 주요임원은 베어닝(Rainer Werning), 흐루스카(Rainer Hruska)와 바인(Roland Wein)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987년까지 한국소식지를 발행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교민단체들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의 방독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로 계승발전 되었다.

5.18 민중항쟁이후 유럽 교민들은 국내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적인 조직과 연계를 맺고 초국적으로 협력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교민들은 군사정권의 등장을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국민안보의 위기로 인식하고(이재은, 2013: 191)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한인단체들은 자국정부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국제 인권규범에 어긋난 국내위기상황을 알렸다. 이들은 유럽 내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들 국가 내 정치인들이 군사정부에 대해 외부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였다. Margaret E.Keck & Kathryn Sikkink는 이러한 국제적 연계를 통한 압력과정을 ‘부메랑패턴(Boomerang Pattern)’으로 언급되는 바(Margaret & Kathryn, 1999: 93), 유럽 내 교민단체들은 김대중 구명을 계기로 초국적 연대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인권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교민들은 유린당한 본국의 반인권적 상황을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윤리적 압력을 행사하도록 이끌면서 국내민주화문제를 쏘지구적인 이슈로 만들고자 하였다.

3.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5.18 민중항쟁의 영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대한 변화는 교민운동이 점차 민주화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확대 전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 해외교민운동은 국내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활동하였다. 분단구조아래 국가안보를 우선시 하는 분위기에서 통일논의는 금기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재독동포협력회의 장일중 대표는 5.18 민중항쟁과 통일문제를 언급하였다.

“아직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점점 통일이 아니면 우리나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광주의 80년 광주 항쟁은 통일을 위한 항쟁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죠.[...] 광주를 겪고 나서 범민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통일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통일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운동하던 사람마저도 이상한 눈으로 봤단 말이지(장일중 구술).”

신군부가 5.18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함에 있어서 미국이 취한 역할에 대해 교민들은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광주에 군대파견을 방조하였거나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외교문서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신군부를 지지했다고 보았다(이삼성, 2007: 471). 교민들 사이에서 국제적 정세에 대한 비판적 각성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분단체제하에서 안보를 빌미로 권위주의체제를 절대화하는 정치상황이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왔음을 깨닫게 되었다(김용현·박영주, 2011: 203). 따라서 교민운동이 점차 자주화 및 민족적인 성격을 띤 통일운동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반공체제가 구조화된 시기였기에 교민사회도 통일논의 자체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고 그 물꼬를 트기가 어려웠다. 교민들은 이전 반공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벗어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동유럽사태와 함께 80년대 후반 범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동·서독이 문화협정을 이루고 4백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교민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었다. 교민들은 한반도가 여전히 적대적인 분단구조 아래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통일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머물러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조국이나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자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한인교회그룹은 독일의 경험이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남북 간 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요 인물로 독일의 이영빈 목사와 이화선 목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과 병행해 전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기독교통일협의회(기통회)’를 결성하였고 첫 통일운동의 장을 열게 되었다. 기통회는 1978년부터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에 꾸준히 편지를 보내었고 통일논의를 제안하였다. 5.18 민중항쟁이후 남북의 만남은 실질적으로 성사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부터 초청받아서 평양을 방문하였고 남북 간 기독교 교류를 맺게 되었다. 이후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남북기독교의 대화모임이 개최되었고 허정숙, 고기준, 최덕신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이영빈, 2005: 304-316). 그리고 1982년 11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간의 대화’, 1983년 7월 평양에서 ‘북과 해외동포 학자 통일문제 토론회 모임’이 잇따라 열렸다.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는 조선 그리스도교연맹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간에 통일대화가 개최되었고 88년, 90년 남북 기독교인들이 만나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은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를 허용하지 않던 당시상황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실정법상의 처벌을 감수한 것으로 이후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었다.

정치참여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과거정권은 시민권적 기본권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권자경, 2013: 233). 1980년 이전까지 통일문제는 민중들의 참여 없이 정부당국에 의해서 취급되어왔다. 남북회담이 있었지만 양측은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우월한 체제의 선전장으로 삼았고 서로 간 진전된 국면을 이루지 못하였다. 5.18 민중항쟁을 계기로 점차 통일문제가 집권세력에 독점되지 않아야 하며 통일문제에 남북한정치지도자 및 교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교민들은 단체내부의 지향점에 따라 그때까지 공통된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통일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교민들 사이에서 해외교포 전체를 연합할

수 있는 모임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유럽민협)’가 출범하였고 이후 이를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많은 인사들은 국내외 재야단체들과 더불어 범민족대회라는 민간통일 운동행사를 추진하였다.

사실 유럽민협은 오월민중제를 모태로 하고 있다. 유럽 내 교민들은 1981년부터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면서 기념행사를 가져왔다. 여러 단체들은 1987년 5월 18일 ‘오월민중제’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전체 유럽교민운동의 연대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이전 노동자권익,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현지연대활동 및 유학생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각기 활동하던 단체들이 ‘유럽민협’이란 지붕아래에 연합하게 되었다. 유럽민협은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재독한국여성모임’,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지부’, ‘덴마크민중문제연구소’, ‘북구민주사회건설협의회’, ‘불란서민중문제협의회’, ‘스위스민주사회건설협의회’ 등의 단체를 포괄하였고 산하 단체들이 독자성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어수갑, 2004: 235-243).

1989년 7월 임수경이 전대협을 대표하여 평양축전에 참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럽민협은 대내외에 큰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1990년 8월 제1차 범민족대회 참가차 1차 60여명이 독일 베를린에서 전세 비행기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으로 보다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종현 의장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는 여러 해외에 연락이 가고 해서 우리는 범민족 성사시켜야 한다. 최소한 늦어도 90년도에는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북에도 알아보았고, 89년도에 때마침 여기 동독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의 대사관에 찾아갔어요. 우리는 수시로 거기에 가서 이리이러하게 생각하는데 범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랬었죠. 미국이나 일본에 연락을 하고 한국에는 자민련 측과 연락을 하면서 범민족 대회를 성사시키자 그러니까 정부 차원이 아닌 소위 민간차원의 범민족적인 대회를 갖자고 이렇게 합의를 본거죠.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제1차 준비 모임이 그게 90년도 7월 말에 있었던 말이에요(이종현 구술).”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해외참가자들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평화통일을 위한 상설단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1990년 11월 베를린에 모여 정식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하게 된다. 유럽지역 운동가들이 활동의 중심이 되어 범민련을 구성하였다(민경우, 2006: 132-134).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은 윤이상, 대변인은 당시 베를린에 체류 중인 황석영이 맡았다. 범민련 유럽본부는 1992년 3월부터 ‘조국은 하나’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몇 해 동안 통일범민족대회를 이끄는 성과를 보였으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범민련이 이전까지 교민활동에서 중심역할을 맡아왔던 유럽민협과 갈등하여 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민운동가들 간에 인적 갈등을 겪고 분열되어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유럽민협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92년 9월 해체되었다.

80년대 중반이후 동·서독 간 교류협력 및 통일현장에 있던 교민들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데 저항하고자 했으며, 냉전이테올로기를 벗어나서 민족통일로 활동방향의 전환을 이루고자 했다. 유럽교민들은 통일운동을 매개로 해서 해외여타지역 교민들과 함께 분단현실을 극복하려는 협력활동을 추진하였고 국내에 통일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교민들은 분단현실에서 그동안 강력한 국가통제아래에 정부가 독점하여왔던 통일운동을 시민사회적 영역으로 전이시키면서 새로운 활동흐름을 형성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III. 오월민중제와 유럽교민운동의 양상

1. 교민운동의 위기와 구심력으로서 오월민중제

1990년 이후 통일운동을 담당하게 된 범민련이 북한 사상노선에 무비판적인 동조와 좌편향적인 활동을 보여서 유럽 내 많은 교민들은 한인운동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단체의 지지기반은 급속히 축소되었다. 범민련은 회원들 간의 갈등, 프락치사건 등으로 대중교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한민족유럽연대, 2007: 82-84).

유럽 내 교민운동이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교민들은 꾸준히 오월민중제를 개최하였다. 오월민중제는 매년 오월이면 유럽의 쏘단체들이 모여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1987년부터 교민들은 함께 2박3일의 일정으로 모이고 있다. 현재에도 단체들 간 갈등과 반목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오월민중제에는 교민들이 이견 없이 다함께 참여하여 상호간 소통을 이루고 있다. 2010년 3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5월 28일-30일 민중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오월민중제는 유럽민주화운동에서 모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행사는 교민단체들이 모두 화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념노선과 내적갈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교민운동을 부활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유럽연대의 최영숙은 오월민중제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월민중제는 단체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만나서 공동으로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광주가 저희들한테 하나의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독일에서, 유일하게 한 해도 안 빠지고 오월민중제를 한 게 이제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가 항상 문화활동사업 그러면 문화행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올해 못 만났던 사람들 같이 만나서 하나의 만남의 공동체 그런 게 있는 거예요(최영숙 구술).”

오월민중제는 유럽교민들 간 ‘공론장(Öffentlichkeit)’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외한인의 사회단체와 관련하여 이념 및 활동성향의 편차로 다양한 독자적인 운동조직들이 존재하지만 오월민중제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 의견을 소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세력이 다양하게 분화되어있지만 이

렇게 연대감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5.18 민중항쟁의 근본정신이 하나의 커다란 통일체로 구성원들을 묶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오월민중제는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제나 기념식의 한정된 의미를 넘어서 국제적 연대협력을 이루어 인류보편적 민주주의와 국제인권운동으로 보다 확산 발전되기를 지향하고 있다. 오월민중제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 및 국제 NGO간 연대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오월민중제는 2세대에게 한민족의 공동체의식과 정체성을 인식시켜주고자 민속문화제 및 역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연극, 음악 및 풍물놀이의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통해 후세들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문화행사의 취지는 5.18 민중항쟁을 흘러간 과거사가 아닌 ‘문화적 기억’으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은 처음 1980년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유럽사회에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당시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주제로 문부식, 김현장 구명운동 단막극, 여성노동운동을 주제로 ‘공장의 불빛’, 동학을 연극으로 꾸민 ‘금강’ 등의 연극이 무대에 올려 졌었다. 현재에도 베를린지역 여성회가 주축이 되어서 풍물패 ‘들풀’과 뮌헨지역 풍물패 ‘바람’ 그리고 2세대를 위한 프랑크푸르트의 ‘단비’와 베를린의 ‘천둥소리’를 진행하고 있다(어수갑, 2005: 72). 주최측은 자기정체성 문제를 고민하여왔던 2세대에게 비록 해외지역이지만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지키고 민족적 긍지를 갖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 교민운동의 현재와 활동양상

1999년 오월민중제를 맞아 독일 빌레펠트에 모인 유럽지역 각 단체의 교민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사회운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호협약체의 구성을 다시 논의하였다. 교민들은 사회운동이 침체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기존단체의 구조적, 형태적 변화를 가해 새로운 조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교민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새로운 한인단체인 ‘한민족 유럽연대(유럽연대)’가 2001년 5월 출범하게 되었다. 중심인물로 이종현, 서의옥, 최정규, 최영숙 등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이전 유럽민협의 이념성을 계승하고 교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 연합활동을 추진하였다. 유럽연대 이종현 의장은 결성과 관련하여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럽연대가 그게 2001년도에 생겼는데, 만들 때까지 독일에는 연합체가 없었다고, 각 지역 단체들, 혹은 여성회 같이 퍼져서 각 단체별로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단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오월민중제였습니다. 이제 여론들이 한국도 민주화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반공의식에 젖어 있어서 우리 활동이 너무 초출하다, 너무 미미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오월민중제를 계속 할 때마다 마지막 토론에서 꼭 모여야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그럼 유럽에서, 각 조직이 들어있더라도 조직의 모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부 다 들어오라 해서 만들었어요. 그 때 처음 발기인 수가 90명 정도였습니다(이종현 구술).”

유럽연대는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기관지 한민족유럽연대를 발간하고 있다. 국내외 민주인사의 명예회복, 양심수 석방운동처럼 국가폭력 및 인권문제에 활동의 역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교민사회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수민족민권운동,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및 환경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목하여 볼 것은 교민들이 5.18 민중항쟁의 민주화를 향한 진보적 동력을 계승하면서 그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점이다. 인권이라는 관심사는 국내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주제이기에, 교민들은 보편적 인권운동의 지구적 확산을 위해 힘쓰게 되었다. 1995년부터 코레아협의회는 독일 에센에 ‘아시아의 집’을 함께 만들어 국제적 연대를 이루었다. 프로이텐베르크 교수가 후원한 기금을 바탕으로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및 티베트의 동남아 연대와 아시아재단을 이루며 국제적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국내의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을 위한 과거경험이 아시아 민주화운동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확산된 것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인권의 진정한 보편화를 위한 뜻 깊은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교민들은 또한 평화운동을 새로이 모색하고 있다. 교민들은 5.18민중항쟁을 계기로 시민차원의 통일운동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그 후 전개과정에서 교민사회의 분열로 이어져 통일운동의 저변확대가 어려웠다. 이후 일부단체가 6.15 공동행사를 주선하며 북한과 직접적인 통일논의를 모색하였으나 교민사회 내에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교민들이 한반도 분단의 냉전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 평화단체와 연계하여 평화운동을 전개하며 통일문화를 자리매김하려는 발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예로 라인마인 한인교회의 김순실은 자녀인 이한나와 지인들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지역 한인교회를 주축으로 ‘통일음악회’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북한 어린이들에게 밀가루를 보내는 민족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집중되어 왔던 제도권의 틀을 넘어 민간영역에서 민족화합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5.18 민중항쟁은 유럽지역 교민사에서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주의 위기를 맞아 유럽교민들은 독일지역을 중심으로 민주적 가치와 주체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아가게 되었고 사회운동의 성격에서도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일반교민들이 사회의식에 눈을 뜨도록 하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수의 교민들이 대중적 역량을 결집시켜 소수의 선도적인 투쟁에 머물러왔던 시민운동을 대중운동으로 확산시켜 대중투쟁의 분출을 이루어 내었다. 그 과정에서 교민들은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유럽사회에서 현지정당과 시민단체와 연계하며 국제문제로 전환시킴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이끌어내었다. 교민들은 국가폭력과 인권문제가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보편

성을 지닌 문제임을 호소하였고 해외에서 민간차원의 국제연대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을 산출했다. 나아가 독일이 통일로 나가는 현장에서 교민들은 한반도에 각계각층의 통일논의를 촉발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과거 집권세력이 분단구조를 이용하여 통일논의를 반공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며 독점하여왔기에, 이에 맞서 교민들은 남북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운동의 장을 민간차원에까지 확대시키고자 했다. 오늘날 단체의 방향과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교민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지만, 오월민중제는 5.18 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교민사회 내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맡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행사는 후속세대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의 민족 의식을 잃지 않도록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 및 남북관계의 변화과정에서 유럽지역 교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위기를 맞아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확대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고, 인권의 가치를 위해 거주국의 구성원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럽 교민들의 사회운동과 이들의 행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특별한 역사적 위상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자경. 2013. 헌정위기와 대응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9(2): 215-246.
- 게브하르트 힐서. 1997. 목가적 전원도시에서 펼쳐진 악몽.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시민연대모임 편, 5.18 특파원리포트. 서울: 풀빛.
- 김 먼 외. 2010. 구술로 본 해외한인통일운동사의 재인식: 독일지역. 서울: 선인.
- 김 먼. 2007. 독일한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 카프카연구. 18: 397-419.
- 김성재. 2004. 독일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5.18 광주민중항쟁보도. 민주주의와 인권. 4(1): 151-177.
- 김용현, 박영주. 201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187-213.
- 김용출. 2006. 독일아리랑. 에세이.
- 무토 이치요. 2007. 5.18 민중항쟁은 일본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광주: 5.18기념재단.
- 마쓰나가 세이타로. 1997. 80년대 한국민주화는 광주항쟁 정신 때문에 성공했다.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시민연대모임 편, 5.18 특파원리포트. 서울: 풀빛.
- 민경우. 2006.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1972~2005. 통일뉴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05. 유럽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최종보고서.
- 이삼성. 2007. 광주민중봉기와 미국의 역할,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2. 광주: 5.18기념재단.

- 이영빈, 김순환. 2005. 경계선. 서울: 신양과 지성사.
- 이재은. 2013.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의 국가위기 유형. 한국 위기관리논집. 9(2): 177-198.
- 어수갑. 2004. 베를린에서 18년 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 서울: 휴머니스트.
- 이주호, 양기근, 류상일, 이상엽. 2013. 위기극복과정에서의 조직의 구조적, 행태적 변화가 조직몰입 및 조직역량에 미친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9(6): 1-20.
- 장태한. 2007. 재미한인사회의 정치구조 변화 5,18,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광주: 5.18기념재단.
- 정호기. 2004. 5월 행사와 주체로 본 '5월 운동' 연구: 연구현황, 한계 그리고 방향. 민주주의와 인권. 4(2): 197-220.
- 조승호, 홍숙영, 조정렬. 2011.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국가위기 대응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 논집. 7(6): 17-28.
- 조현욱. 2005.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66: 72-94.
- 한민족유럽연대 편. 2007. 정규명. 서울: 한민족유럽연대.
- 한·유럽연구회 편. 2003. 유럽한인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 Wein, Roland. 2007. 광주 5.18이후 독일에서의 한국연대사업,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4. 광주: 5.18기념재단.
- Barber Benjamin R. 1998/1999.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Democra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3(4): 573-585.
- Geißel, B. und K. Thillman. 2006. *Partizipation in Neuen Sozialen Bewegungen, Politische Partizipation zwischen Konvention und Protest*. Beate Hoecker. eds. Opladen.
- Margaret E. Keck and Kathryn Sikkink. 1999.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1(159): 89-101.
- 구술증언(2007년 8월 & 12월 독일현지에서 실시됨).
- 이종현(유럽연대대표), 김정숙(前세종학교이사장), 김아일(前노동교실대표), 김진향(한민족여성네트워크독일대표), 이준식(범민련유럽본부의장), 장일중(재독동포협력회회장), 윤운섭(노동교실대표) 최현덕(前KoreaVerband사무장), 김순실(라인마인교회통일위원회회장), 최영숙(유럽연대부회장) 이한경(前재독한인노동자연맹대표).

金勉: 독일베를린(T.U.)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기초연구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 “독일민속학(2012)”, “구술로 본 해외통일운동사의 재인식(2010)” 등이 있고 주요논문으로 ‘분단구조의 동서독민속학(2011)’, ‘나치즘과 독일민속학(2011)’, ‘독일 한

인통일운동의 형성과 전개과정(2007)' 등이 있다(drmyunkim@naver.com).

투 고 일: 2013년 09월 29일

수 정 일: 2013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10월 25일

The 18th May Gwangju Uprising,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in Europe

Myun Kim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democratic movement of Koreans in Europe after the 18th May Democratic Uprising. This work tries to describe the democracy movement of the Koreans abroad and the history of Korean groups in Europe. In particular, the ideas of the groups for the democracy of Korea are analyzed and the movements are explained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Gwangju massacre in 1980 many Koreans had taken part in the demonstration in Europe. In the crisis of democracy the Koreans abroad played a leading role against military dictatorship. The demonstration in Europe is evaluated by the three aspects for the evolving democracy in Korea. The first of the three is that the Uprising induced public participation; Second, the Koreans abroad had fought with different groups for democracy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ird, the Koreans abroad expanded the citizen movement to the unification movement. The 18th May Gwangju Uprising and succession of its spirit could be called as decisive operator to realize the democracy in Korea. Since May 1987, the memorial May Minjungje is continuously held once a year and is organized by the Preparatory Commission of various groups. The spirit of the Gwangju Uprising has resonated with Koreans in the global move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is paper Lee Jong-hyun, Kim Jin-hyang, Lee Jun-sik, Kim A-il, Kim Jung-suk, Jang Il-Jung, Yun Un-sub, Choi Young-Suk and Choi Hyun-duk are concretely examined and their activities are described. This study of the democracy movement of the Koreans in Europe has the meaning to lay the foundations in this area of research.

Key words: the 18th May Gwangju Uprising, the Korean democracy movement in Europe, the Crisis of Democracy